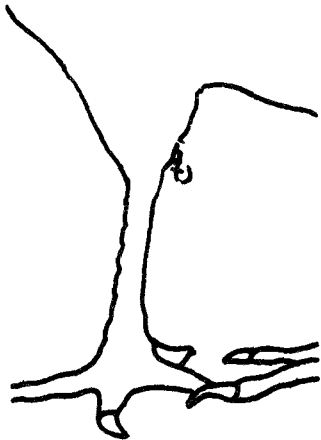


세계의 養鷄産業



브라질편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축산현황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의 동쪽에 면적 8,512,965km²를 가진 거대한 나라로 우리나라 보다도 약 40배정도나 넓고 인구는 1억 1천만으로서 커피, 코코아, 목화, 사탕등의 세계적인 주요 수출국으로서 농업이 주된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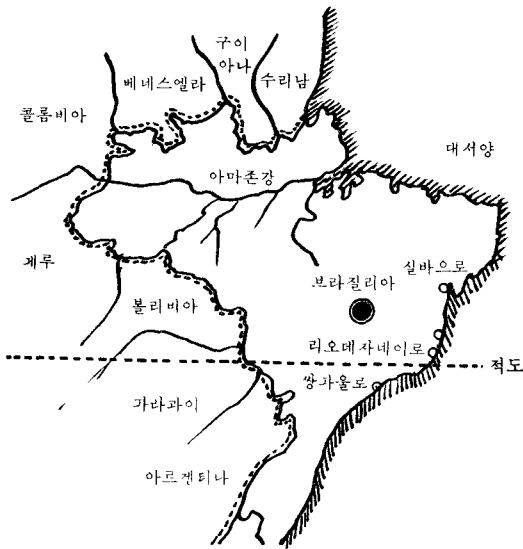
미개척의 아마존강 유역을 비롯하여 넓은 국토의 대부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축산업이 전체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 수입면에서 농정도였으나 1970년에는 농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축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주로 낙농업이 축산업 중에서도 주된 산업으로 1960년 우유생산량이 13억갤론(gallon)에서 1970년에는 19억갤론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양계산업도 외국 유명회사들의 진출과 여러나라에서 온 이민들에 의해서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비육우사업, 양돈, 면양, 산양의 사육정도는 별다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고있다. 각 가축별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브라질의 가축 현황 (단위 : 1,000)

년도 가축명	61~65	73	74	75
소	59,810	85,000	90,830	92,480
돼지	26,544	33,000	34,000	35,000
면양	19,996	25,500	26,000	26,500
산양	12,438	16,000	16,000	16,000
닭	144,924	255,000	271,676	272,000
오리	6,691	8,400	8,500	8,659
칠면조	3,219	4,700	4,900	5,052
물소	67	145	159	166

양계현황

2억7260만수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 브라질은 인구 1인당 약2.5수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970



년 부터 브로일러산업이 급격히 발전해 오고 있는 이곳에서는 1969년에 브로일러가 1억수정도 생산되었는데 중동의 산유국에 수출시장을 개척한 이래로 1976년에는 3억9400만수가 생산되었고 1977년에는 1976년에 비하여 10~15%가 증가한 수치가 된다고 한다.

1970년까지는 주로 국내소비에 충당이 주목적으로 양계업이 발전되어 왔으나 1975년에 쿠웨이트, 이란, 등지를 비롯하여 중동에 닭고기 7,500TON을 수출하였고 1976년에는 21,000TON 1977년에 40,000TON의 닭고기를 수출하게 되었다. 1976년말 통계에 따르면 닭고기 생산이 551,600TON에 달하고 계란은 5억 1천만타스를 생산하였으며 브라질 국내에 소비되는 양이 가격으로 환산하여 약 10억\$ 정도이고 수출이 2천만\$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5.48kg 이고 계란은 55개 정도라고 보고되었지만, 브라질 국민중 농 정도만이 시장에서 양계산물을 구입하고 나머지 총는 시장에서 보다는 자가생산에 의해서 대부분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통계수치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전체인구의 총에 해당되는 3,700만이 닭고기와 계란을 소비

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닭고기 16.3kg 계란 165개의 추세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브라질의 근대 양계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 후반에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계통을 유지한 품종 그리고 영양수준에 따른 사료배합등이 인식되게 되었고 이때부터 서서히 북미 즉 미국 캐나다의 영향이 이곳의 양계산업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브라질의 사양가들과 미국 전문가들 간에 기술협정이 체결되어 미국식의 양계전반에 대한 기술을 도입하여 근대 양계산업의 기초를 닦았다고 볼수가 있다. 60년 초반에 미국으로 부터 능력이 우수한 종계가 소개되었고 일반적인 교배방법이나 선발에 의한 육종사업이 약간씩 시작되었으며 몇몇 종계장에서 미국의 유명 종계회사와 자매(姉妹)관계를 맺어 완전히 미국식의 양계산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1960년 후반에는 유럽, 일본, 이스라엘 종계회사들이 입지조건이 좋은 브라질에 진출하게 되어 양계산업은 세계 선진국의 면모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72년 부터는 외국에서 수입된 종계로 부터 우수한 유전인자를 이용한 브라질 자체의 육종사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착수되어 오고있다.

산란계 산업은 1970년 이후 부터 수출용으로 성장되어온 브로일러 산업만큼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1969년 4억 5천만타스의 계란생산이 1976년 6억 1천만 타스로 양적으로 증가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변화는 1969년에만 하더라도 부업위주의 양계농가가 대부분이었는데 1970년 부터는 500수이상의 규모가 거의 전체양계농가의 절반이상 이나 되고 큰농장에서는 백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란계는 캘리포니아식 케이지에 사육되고 있으며 산란계 사육농가는 일본으로부터온 85만명정도의 이민들에 의해서 70%이상이나 차지되고 있다

또 브로일러산업에도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브라질의 양계산업을 일본 이민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왔고 그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도 할수있다.

브라질은 옥수수과 콩의 세계적인 대수출국으로서 사료자원 문제에 불태 양계산업에 큰 잇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고 있는 땅콩, 육분, 알파파 그리고 많은 다른 사료자원을 이용한 사료를 자체생산 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지만 단백질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분과 무기물, 그리고 비타민등의 생산이 적어서 이들 원료의 필요량은 거의 전량이 외국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60년 대 후반부터 사료회사가 등장하여 양계배합사료가 시판되었으며 이전에는 대부분이 옥수수가 주가된 자급사료에 의존하였고 규모가 큰 양계장에서는 여러 사양가들이 공동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량의 배합사료를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여 왔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겪고있는 식량난으로 양계산업은 브라질에서 주요한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외국 수출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양계산물의 품질은 선진국과 다를 바가 없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1976년에는 많은 브로일러 도계장이 설립되었고 양적인 면과 마찬가지로 질적인 면에도 충실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포장 기술도 개발하였다고 한다. 넓은 국토를 가지고 사료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에서는 양계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있고 수출시장의 개척, 외국 주요 종계회사들의 대거 참여로 세계의 주요 양계산업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양계산업이 안정되고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좀더 높은 관심이 있어야하고 영세 양계에게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매우 아쉬운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청량리가축약품

- ◎ 병리검사 무료실시
 - ◎ 호흡기병(CRD)特效약
 - ◎ 빠다리병(포도상구균증)特效약
- 호평리에 발매중!

* 지방주문환영

서울동대문구전농 2동 597-32
 (한국육계회연락처) ☎ (주간) 966-8780
 (야간) 49-4878

